

남편 모르는 비밀

밤이 어수룩 캄캄해지기시작하는 겨울날 나는 한 남자를 주춤거리며 미행하고 있다. 그리다가 잠시 뒤돌아서 머뭇거리다가 다시 점점 멀어져가는 그를 향해 다가가려 발을 띠고 있다간 또 몇발짝 못가서 또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서며 망서리기를 몇번을 하고는 결국 발길을 돌리고 말아야하는 용기없음에 나는 잔뜩 무겁고 개운치 못한 마음으로 약속장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속으로 “니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는”말이다. 남이 언뜻 이 장면을 보았으면 나는 영락없이 어떤 남자를 쫓아가려는 수상한 여자의 모습이다. 내가 쫓아가려는 남자는 추운겨울날 허름하고 낡은 얇은 옷가지 두가지를 달랑 겹쳐있고는 그라니 스미스 사과하나를 들고 맛있게 아껴먹듯 먹으며 가고 있는 스페니쉬 노동자 남자어른이다. 내가 그를 쫓아가게된것은 그의 눈에서 말할수없는 선함을 느끼게 한 짧은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때 남편과 곰국을 맛있게 양념해서 먹을 계산을 하고는 집에 가기전에 상담케이스때문에 약속장소로 가려다 맞은편에 있는 그로서리에 가서 파세단을 급하게 집어들고 계산대에 섰다. 어떤사람이 계산중에 있었고 그는 사과하나를 들고 계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계산대 앞으로 가까이 가자 가벼운 미소로 내게 먼저 하란다. 나는 “당신이 먼저 있었는데 그럴수는 없다며 미소로 그에게 먼저 권했다. 1불 25전이 나왔다. 그가 부시럭 거리며 1불 짜리 지폐를 내고는 동전을 찾느라 여기저기 뒤지자 주인은 1불에 3단짜리 파를 들고 서있는 나를 보고는 먼저 돈을 내란다. 그와 동시에 나를 1불을, 그는 25전을 내고 내가그의 뒤를 따라 가게의 문을 열고 나오게 됐다. 그런데 내가 가야하는 약속의 장소는 아닌데 나는 마치 자석에 끌린것처럼 그를 따라가고 있는것이다. 어디서 막노동을 하고 왔는지 힘이 하나도 없는 선량한 눈을 가진 그가 1불 25전을 내고 소중한듯 두손으로 사과를 받쳐 먹고있는 그모습에 나는 무조건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다. 도저히 내 갈길로 가지지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따라가는 그짧은 동간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에게 그라니 스미스사과 한봉다리를 사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음을 알았다. 나는 그를

뒤따라가면서도 내자신이 황당하기도했다 “아니 왜 엉뚱하게 사과를 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거야”하면서 나는 갈등을 안고 그를 쫓아가고 있는것이다. 망설이며 쫓아가다보니 이광경이 망막하다. 정말 미치겠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그를 쫓아 으스스한 길을 따라 쫓아가면서 “저, 잠깐 기다리겠어요,제가 사과를 좀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다면 금방 사가지고 나올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겠어요”하고싶은데 동시에 “저사람이 놀라거나 의아해하면... 아니 자존심이라도 상하게 한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며 그동안 가슴이 콩당콩당, 목젖까지 침이 꿀꺽하던 그 용기가 그만 사그라지고 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돌아서는 나를 보며 나는 그만 울고 싶었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라며.그리고는 내내 그에 대한 이름모를 연민이 내마음에 그득하게 무거움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씩씩한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도대체 겁이 없이 밤에 펠리사이드팍 골목길에서 왜 스페니쉬남자 뒤를 쫓아가! 정말 이해를 할수없는 사람이네” 라며 어이없는 웃음을 웃으며 내게 핀잔을 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것같다. 이웃에 대한 이런 가벼운 사랑과 연민의 마음들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며 살수있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마음에 “뭐 이런 여자가 다있어”라는 반응이있을까 두려워 그 마음이 움츠려 들지 않는 그런 세상 말이다. “그래!내가 이번에는 용기가 없어 못했지만 오늘 아침 내게 “하이 마마” 하면서 빠드렁니를 드러내놓고 늘 따듯하게 웃으며 기름을 넣어주는 그에서 따스한 겨울을 나라고 목도리를 선물해야지” 그리고 내가 배가 고파 왕만두 세개를 사서 차안에서 먹으며 기름을 넣고 있는데 그것을 흘끗쳐다보는, 얼굴이 까맣다 못해 빨질빨질한 자마이칸 흑인 에게 “너 먹어볼래”했더니 허연이를 온통 내보이며 침까지 꿀꺽하며 받아 먹고 너무 행복해하던 그에게 따끈한 왕만두 한보따리를 추운겨울에 선물해야지... 그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안할거야..”하며 남편모르는 다른 남자들에게 선물할 비밀이 있는 나는 다시 행복해진다.